

# 현대 일본 패션에 내재한 반꾸밈 미학

채 금 석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전공 교수

## Anti-decoration Culture in Contemporary Japanese Fashion

Keum-Seok Cha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4. 8. 2 토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the characteristics of aesthetic sense from the spiritual root of anti-decoration culture in contemporary Japanese fashion and find the aesthetic meanings inside contemporary Japanese fashion.

This study considered contemporary Japanese fashion design from 1970 to 2000 to figure out the anti-decoration culture in contemporary Japanese fashion.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1. surveying the historical change about the aesthetic sense of Japanese anti-decoration culture, 2. deducing the distinctive aesthetic ideology from the anti-decoration culture 3. finding aesthetically the inside meaning of anti-decoration culture in contemporary Japanese fashion. The conclusion on this study is as the followings.

Anti-decoration culture has three aesthetic ideology. First, faintful aesthetics implies the aesthetic ideologies of Wabi, Sabi from Heian period and it appears the aesthetic sense to be natural beauty, simplicity, minimalism and temperance. Second, ambivalence aesthetics is based on nothingness and has the characteristic of multivocal and variableness without biased view. Third, playful aesthetics has the meaning of humorous, witty and mischievous which is the basic factor of Japanese formative arts.

The aesthetic range of this study are the beauty of simplicity, poverty, incompleteness, vagueness and humor. First, beauty of simplicity is composed of minimal lines and area through strict temperance and elimination. Second, beauty of poverty came from the aesthetic concept of Wabi which means honorable poverty and plainness. Third, beauty of incompleteness means emptiness which is within the range of possibility. Forth, beauty of vagueness could be explained as incorporeal, colorlessness and voiceless. Fifth, Okashi which was the middle ages in Japan, shows the vein of humor in anti-decoration culture.

As a result, anti-decoration culture does not mean the opposite of decoration culture, but accomplishes extreme artificial beauty by strict temperance and elimination. Also it is concerned as intentional poverty of decorative effect.

Key words : anti-decoration(반꾸밈), faintful(고담:枯淡), ambivalence(농:朧), wabi(와비), sabi(사비)

## I. 서론

美의 본질은 삶의 현상으로서 직관과 감정이나 의지, 그리고 체험을 중시하여 통찰되어 진다. 이러한 점에서 미는 '삶'의 이해이며, 삶과 가장 깊고 넓게 연관을 갖는 것은 정신으로 이는 생활환경과 경험의 축적 속에서 종교나 철학과 같이 다루어진다.

염려(艷麗)의 꾸밈文化에서 담박미(淡泊美)의 반꾸밈 문화로 전화된 일본인의 정신사에 흐르는 미적 이념에는 고대의 '깨끗하고 밝고 곤은' (清キ明カキ直キ) 마고토(眞事)정신이 존재하며, 이는 불교의 전래와 함께 변화되어간다.

일본사에 흐르는 정신사상에 내재된 미의식에 있어 '꾸밈'계와 '반꾸밈'계로 대별되는 두 조류 가운데 '반꾸밈'계 文化는 일반적으로 '선(禪)'과 연관되어 평가되고 있으나, '선'만으로 일본문화를 총괄할 수는 없다.<sup>1)</sup> 일본문화에는 도가 등 동양 정신사상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되어 일본인특유의 주관적 반동에 의한 번안과 해체를 통해 일본만의 독자적인 '선'적 특성을 형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 하여 반꾸밈 미의식은 동양 정신사상을 바탕으로 의도적으로 가공된 탈속적 공허미(脫俗的 空虛美)를 연출해내고 있으며 이는 꾸밈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인공미의 극치'를 이루는 반꾸밈적 새로운 미의 진화로서, 허(虛)로서 미를 이루한 일본특유의 예술미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보의 "꾸밈 미학"<sup>2)</sup>에 이어 1. 일본의 반꾸밈 문화에 내재한 정신사상의 근원을 살펴서 2. 반꾸밈 문화를 구성하는 미의식의 특징적 미적 이념을 도출하여 3. 이를 현대 일본 패션과 연관하여 이에 내재한 그 미학적 의미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의 범위는 1970~2000년대까지의 현대 일본 디자이너의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문헌 연구와 실증 연구를 병행하여 고찰하였다. 시각 자료의 객관성을 위해 의상 전문 교·강사 20人이 판단하여 선정한 작품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 II. 반꾸밈 미의식의 미적 구조

미의식이란 미를 이해하고 감상할 때의 감각과 경험을 말한다.<sup>3)</sup> 반꾸밈 문화는 미에 대한 감각과 경험을 통한 미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문화이다. 이에 따라 반꾸밈 문화를 형성하는 독특한 미의식을 반꾸밈 미의식이라 칭한다. 일본 문학사에 나타난 미의식은 시대에 따라 미적 이념이 특색을 가지고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형성되어 왔다.

### 1. 반꾸밈 미의식의 형성배경

일본 문학사에 나타난 미의식의 변천의 추이를 살펴보면<sup>4)</sup> 반꾸밈 미의식이 형성된 시기는 선이 일본에 정착한 중세 가마쿠라(鎌倉:1192-1333) 시대로서, 이 시기는 한적하다고 일컬어지는 일본의 독자적 미의식이 새롭게 만개한 시대이다. 중세는 혜이안 왕조의 몰락으로 귀족사회가 쇠퇴해 가는 과정에 화려한 과잉적 미의식이 여정(餘情), 유현(幽玄)이라는 도회적(都會的) 골격미로 전환되고, 다시 유심(有心)체의 미의식으로 변화되면서 '와비(佗)', '사비(寂)'<sup>5)</sup> 등 일본선의 특색인 독창적인 '무(無)'의 문화를 탄생시킨다. 사비는 한적함 속에서 깊은 멋과 정신적인 풍요로움, 아취를 지니고 있다는 미적이념으로<sup>6)</sup>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과정인 퇴색, 마모, 파손이라는 퇴행 현상을 우아미로 승화시켜 은근한 미로 보는 미의식이다. 와비는 빈곤함 속에서 마음의 풍요를 즐기며, 겸약, 단순성에서 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일본다도가 추구하는 청빈적 감각주의 미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몰락한 귀족계급의 산중은거(山中隱居)의 질박한 물질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반항적 미의식이 만들어낸 일종의 반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와비, 사비의 미의식은 日本의 반꾸밈 문화의 근원이 되었다.

자유롭고 구애하지 않는 경지를 이르는 '무심(無心)'의 미적 이념은 선적 색채를 띠면서 아름다운 것은 덧없으며, 덧없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는 적극적인 무상감으로 일본인의 모든 생활방식을 지배하게 되었다.<sup>7)</sup> 이와 같은 선적(禪的) 색채를 띠는 무(無)

의 문화는 진실, 성실을 특징으로 하는 소박한 미적 감동의 마고토(眞事)에서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 일본 문학사에 흐르는 미의식의 변천에 관하여 전보<sup>8)</sup>의 내용을 참조하여 <표 1>에 정리하였다.

다이세쓰(鈴木大拙,)10)는 “일본인의 미의식을 형성한 요인 중에 선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은 국제적인 통념의 하나이지만 선만으로 일본 문화를 말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선의 도가적 측면에 대해 논한바 있다.

&lt;표 1&gt; 시대별 미적 이념

	정치사관	미적이념	미적문화	정신사상
고대	야마토(大和) 아즈카(飛島) 나라(奈良)	마고토(眞事) 미야비-귀족문화	귀족문화	불교
중고	헤이안(平安) 794~1195	아와례-모노노아와례 다케다카시	꾸밈문화	도가 불교(염세) 유교(도덕적)
중세	가마쿠라(鎌倉) 무로마찌(室町) 모모야마(桃山) 1192~1338	여정 유현--와비, 사비 유심	꾸밈 · 반꾸밈문화	노장사상(도가), 불교 선종(선종)
근세	에도(江戸) 1603~1903	이키 시부이	꾸밈, 반꾸밈문화 귀족문화(세련된 도시적 관능미)	도가(중국풍은둔)-노장 유교(신도를 도덕화)

## 2. 반꾸밈 미의식과 정신사상

일본의 반꾸밈 미의식을 형성시킨 이면에는 '선'이라는 종교 사상적 이념이 작용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는 도가 등 동양 정신사상적 요소에 의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독자적 감각이 키워낸 산물이다.

### 1) 일본문화와 선불교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 지난 20세기 동안 수많은 종파로 분화 발전되어 왔으며, 그 가운데 독특한 하나의 교단이 선종이다. 선은 율과 함께 모든 불교의 실천의 기본으로 그 용어는 인도의 산스크리어인 드이야나(dhyana)로부터 유래하였다. 그 의미는 명상, 정려(靜慮), 정관(靜觀)과 자기제어 등의 의미를 함축하는<sup>9)</sup> 정신적인 자기 훈련의 방법이므로 이는 형태가 없는 마음의 문제로서 누구라도 실행 할 수 있는 단순한 자기수행이 요구되는데 좌선, 선문답이 그것이다.

선은 인도에서 발생하여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을 거쳐 일본에서 집대성된 것으로 이른바 동양정신사상의 한 핵으로 작용하는 유·불·도의 우주관을 바탕으로 한 논리구조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스즈끼

선이 일본에 전해지는 것은 13세기 초 가마쿠라(鎌倉) 시대이며, 그 사상적 구조는 불교와 도가를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집대성 된 것인 만큼 논리구조의 틀을 일본적인 특유한 미적이념으로 발전시켜 많은 문화를 창조해 왔다. 선종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내재하는 참 의식에 대한 깨달음(自覺)인데,<sup>11)</sup> 이는 바로 '참된 자기를 아는 것, 자신의 눈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sup>12)</sup> 일체 기성의 문명을 단절하고 무(無)에서 시작하는 것이 선의 본질로서, 중세이후 선문답(禪問答)을 중시하는 공안선(公案禪) 일색으로 변화되었다. 선종은 수행방법에 따라 종파가 분리되는데 공안선<sup>13)</sup>은 그 중 하나이며, 이 공안선을 중심으로 일본 독자의 새로운 생활문화가 형성되었는데, 경도(京都) 용안사의 석정이나 일본 산수화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셋슈운(雪舟)의 수묵, 차도의 완성자 리큐(利休)의 와비차(佗茶) 등의 선의 예술은 모두 이 공안선을 본질로 하여 탄생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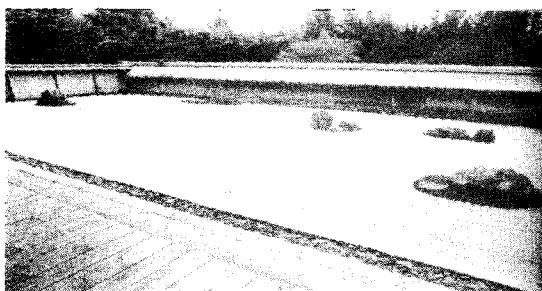
일체의 외적형식을 버리고 본래의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참된 '자기' 그 자체-'본래무사(本來無事)'가 선의 출발점이다. 즉, '마음의 걸림이 없는 것',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지나침을 경계하여 능력을 안으

로 축적한다'고 하는 유연하면서도 강건한 내적 단련의 지속이 본래부사(本來無事)로 이는 일본적인 독특한 '한적함'의 정신의 기초를 이루었다. 이 한적함의 원리는 꾸밈문화의 '과잉의 미학'을 반꾸밈 문화의 '제거의 미학'으로 대치시켰으며, 이는 와비(侘び), 사비(寂び) 등 '무(無)'의 문화라고 하는 독특한 일본 선을 탄생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헤이안(平安) 시대 사람들의 은둔은 궁정, 관직, 가정생활을 떠난다는 의미가 있어서 불교적 염세관과 얹혀있다. 이들의 은둔에는 도가풍의 사상과 불교사상이 혼합된 혼적이 보인다.<sup>14)</sup> 이와 같이 선사상(禪思想)은 동양적 우주관을 토대로 한 도가,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거의 예는 내용전개에 따라 고찰하기로 한다.

### 3. 반꾸밈 미의식의 특성

#### 1) 반꾸밈 미의식과 추(醜)의 미학

19세기 명치시대의 미술평론가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은<sup>15)</sup> 일본문화의 특색은 불완전성이며, 모자라는 것은 공상에 의해 보충하고자 하는 특수한 미의식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하사마쓰신이찌(久松眞一)는 텐신의 설을 수정하여 '완전한 것의 자기부정'이라 하였다. 즉, 일본문화의 불완전성은 완전에 도달하기 직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것을 자제하는 '불투명한, 수수한, 소박한, 염소(艷消)'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며 용안사의 석정(그림 1)<sup>16)</sup>을 그 절정에 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1> 용안사 석정,  
일본미술의 이해의 길잡이, p. 82.

또한 Harold Koda는 일본미학의 본질을 불규칙(irregularity), 불완전(imperfection), 비대칭(asymmetry)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반꾸밈 즉, 꾸미지 않은 미의 계보는 궁극적으로 종교적 공(空)과 통하는 것으로 간결의 미, 생략의 미, 정적의 미 - 즉 최대한 불필요한 것을 떨어내고 걸려낸 후에 떠오르는 미의 이념<sup>17)</sup>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일본인의 미의식은 균형이 맞지 않는 불균형적인 것을 좋아하므로 짹수보다는 홀수를 존중한다 하는데, 이를 하사마쓰신이찌는 선의 본질로 설명하고 있다.

	본질		특성	정신사상
Rosen	서양	몰형식성 · 부정화성	추의 미	
Kranz	미학	· 변형		
Harold	일본	불규칙 · 불완전 · 비	불균형성,	
Koda	미학	대칭	불투명성	선 철학적

간결의 미 생략의 미 정적의 미	종교적 공(空)	
가츠히로 세이지마	일본미학의 본질=추의 미	∴ 선(禪)=공(空)

<그림 2> 일본미학의 본질

이렇듯 좌우균형을 중시하지 않는 불균형적이고 불투명한 아름다움을 기본으로 하는 일본인의 미의식은 선으로부터 왔다고 하는데, 선을 토대로 한 일본의 전반적인 예술美의 정수를 추(醜)함의 미<sup>18)</sup>라고 가츠히로 세이지마(猪廣正島)는 표현하고 있다.

서양에서 추는 미의 상대영역으로서 희랍시대에는 부정적이고 소극적 개념이었으나 니체를 통해 그 형이상학적 관점이 깨어지고 이어 Hegel의 변증법을 바탕으로 칼 로젠크란츠(Karl RosenKranz)는 그 개념파악의 사유에 있어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 범주 안에 포함시키게 된다. 그는 추를 '몰형식성', '부정화성', '변형'으로 그 형식을 나누어 파악분석하고 있다. 이로 하여 추는 예술일반에 있어 적극적 인식을 가지며 미적 가치로의 전환으로 혐오적인 것, 풍자적인 것, 익살스러움, 위트, 비속적인 보편성, 회극적인 속에서 천진함으로 나뉘어져 이 모든 총괄아래 미의 풍부한 이상성을 주장하게 된다.<sup>19)</sup>

따라서 선사상에 토대한 반구법 미학은 서양적 관점에서 추의 미학으로 설명될 수 있다. 고대 희랍시대부터의 서양의 미·추에 대한 이분법적 체계에서 추의 미적 가치로의 인식전환은 18세기경인데 비하여 일본은 상고시대부터 추에 대한 미적 가치로서의 인식의 사유가 존재했으며, 이에 따라 애초부터 미·추의 이분법적 논리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동양적 사상체계의 중심을 이루는 도가와 관련이 깊다.

동·서양의 사상체계를 가르게 하는 결정적 단서는 우선 문자체계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서양의 문자는 표음문자로서 Audio적 효과를 중시하므로 시간성과, 그 논리를 구성해 가는 합리성(Rationality)이 발달하고 이를 근거로 하는 이성철학이 발전하게 됨으로써 세계의 궁극적 본질은 이념, 또는 물질로 귀결되어 서양의 우주관을 형성하는 기본은 유(Being)가 된다.<sup>20)</sup> 이에 반해 동양사상의 근원이 된 중국의 한자는 표의문자로서 Video적 효과를 중시하므로 공간성이 발달하고, 전체를 파악하는 전체성이 발달한다. 이에 따라 동·서양은 우주관 자체가 서로 다르다.

도(道), 무(無), 이(理), 기(氣), 공(空), 허(虛)의 개념체계를 갖는 동양문화는 도가 가장 핵심으로, 도의 형이상학적 특징을 나타내어 주는 것은 무이며, 무는 선진시대부터 도의 근본으로 강조되었다. 불교와 도가(노장사상)를 중심으로 형성된 선 철학의 공, 무의 개념은 바로 이에 통하는 것으로, 불교의 '공'역시 이러한 무를 지지기반으로 작용하였으며, 따라서 동양의 우주의 본질의 실체는 무(Nothingness)-공인 것이다. 동양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존재론적(Being) 우주를 믿지 않았으며, 이를 노자는 허의 개념으로 풀어나간다. 즉, 우주에 고정된 실체는 없고 단지 내가 그것을 어떤 기능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존재자체의 규정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 만 가지에 공통된 기능을 노자는 '빔-허(虛)'라 하였고, 노자의 이 '허'의 존재론은 동·서양문화의 상반된 논리를 탄생시켰다. '빔-허'는 단순히 공간이 아닌 모든 존재의 기본적 기능으로, 모든 존재의 가능성이며, 실현되기 이전의 잠능(潛能)이며, 가능태(Potentiality)<sup>21)</sup>라는 개념이다.

도-무-공-허로 이어지는 동양적 우주관의 '도'는 매크로한 우주 전체를 말하며 텅비어 있는듯해서 아무리 써도 고갈됨이 없으며, 이 고갈되지 않는 '허'를 가능케 하는 것은 '도'의 순환성(Circularity)으로 설명된다. '도'의 순환성의 특성은 멀다는 의미의 '원(遠)'으로 설명되는데, 여기서 '원'은 공간적으로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극한성(ultimateness)을 발현한다는 의미로 궁극이전에 하나의 연관된 전체를 말한다. 그런데 이는 홀로 서있는 전체이므로 항상 전체적 균형을 회복하며 이러한 주기성, 리듬성을 노자는 '반(反)'이라 하였는데 이는 모든 유기체의 피드백 시스템으로서 '반(Returning)'은 '반대(Antithesis)'의 의미이나 이는 동시에 '반(返:돌아옴)'을 의미하는 동·서양의 상반된 사상체계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다.<sup>22)</sup>

따라서 미·추의 사유개념에 있어 동양은 '반(返)'이 아닌 '반(反)'은 실존할 수 없었으므로 양극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미와 추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다. 서양문명사는 바로 이러한 反의 형식적 논리와, 반(返)의 현상적 논리를 혼동<sup>23)</sup>한데서 생긴 것이며 그래서 미와 추, 선과 악 등의 이분법적 사고가 발현된 것이다. 즉,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은 형상이 있을 수 없으며, 이의 무형상은 그 어떤 형상으로도 가능한 잠재태고, 또한 미완을 남겨둠으로써 존재를 존재이게끔 하는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기의 접적태인 허의 무형의 세계에 대칭과 균형, 규칙이 있을 수 없으며 存在의 가능태로서의 온갖 변형이 잠재하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해롤드 코다(Harold Koda)<sup>24)</sup>가 일본 미학의 본질을 불규칙, 불완전, 비대칭이라 논한 근원이 바로 여기 있으며, 이는 서양의 이분법적 미·추의 관점에서 볼 때 곧 추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불균형적인 것을 선호하여 짹수보다는 홀수를 존중한다는 일본인의 미의식의 근원 역시 바로 매크로(macro)한 우주가 하나로 연관된 홀로 서 있는 전체로 간주하는 동양적 우주관에서 발현되었다고 사료된다. 또한 하사마쓰신이찌가 선예술의 조건으로 예시한 불균정(不均整), 枯高(시들시들한 것), 자연, 세속, 간소, 유현, 정적의 개념 역시 완전한 자기부정으로서의 절대무(絕對無)의 창조로서 일본인의 반구

밈 미의식을 상징하며, 이는 곧 동양적 우주관을 바탕으로 한 선 철학적 사유개념의 본질을 시대의 미적이념과 융합·발전시켜 그들 특유의 미의식으로 형성한 추의 미로서 귀결된다고 사료된다. 여기서 불규정은 홀로 서 있는 전체로서 그 순환성에 의해 결국 전체적 균형을 회복한다고 하는 미완의 가능성을 통한 '완(完)의 실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꾸밈'의 본질은 어떤 대상의 특질을 잊지 않고 가능한 최후의 단계까지 군살을 제거하여 간소화하는 작업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고도로 계산된 꾸밈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반꾸밈'은 간결미를 지향하는 일본인들의 심미기준인 섬세함과, 존재성의 박약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고담미(枯淡美)로 이어진다. 결국 의장미학은 최소

&lt;표 2&gt; 동·서양의 사상체계 비교

	동양	서양
문자	표의문자: Video 효과-언어의 명징성거부 무(nothingness) 공(space)-허(emtiness)	표음문자: Audio 효과-언어의 실체성 유(Being) 실체(Substance)
사상체계	주관주의 감성-비합리성 공간성, 전체성 상대적 가치	객관주의 이성-합리성 시간성 절대적 가치
미의식	정성분석-경향분석-비명석성 회화적 심미성 순환성-이분법초월(返) Analogue	정량분석-선판석-명석성 음악적 논리성 직선성→이분법(反) Digital

## 2) 반꾸밈 미의식의 미적이념의 구조

전술된 '꾸밈 미학'에서의 "일본 미의식의 변천사"<sup>25)</sup>를 토대로 반꾸밈 미의식을 구성하는 미적이념의 구조를 살펴본다. 미적 이념이란 미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 때 궁극적으로 하나의 비약으로 제시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반꾸밈 미의식의 미적 이념은 일본 반꾸밈 문화의 현실을 통해 움직이는 이상적 원리, 각 시대에 추구해 온 반꾸밈의 전형적인 특성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미적구조란 미에 관한 관념을 이루는 정신사상을 통해 형성된 미적 이념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미의식의 성질적 차이를 몇 가지 유형<sup>26)</sup>으로 구분한 그 미적범주를 이루는 사상적 구조를 말한다. 일본인의 미의식을 풀어가는 열쇠로서 일반적으로 선과 고요한 정서(侘び), 예스러운 운치(寂び) 등의 말이 논의되어진다. 이는 꾸밈 미의식에 반하는 간결, 생략, 최대한 본질적인 것만을 여과하여 걸려낸 미의 이념에 통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종교적 空과 통하는 개념<sup>27)</sup>으로 여기엔 시대에 따라 형성, 발전된 독자적 미적 이념이 내재한다.

한의 장식으로 최대한의 장식미를 추구하는 과감한 도전<sup>28)</sup>이며, 따라서 핫토리유키오(服部新雄)가 말하는 '종교적 空'과 통하는 반꾸밈 미의식의 계보로 예시되는 선, 와비, 사비가 추구하는 미학은 정교한 과정을 통해 발현된 완숙된 의장미로 이해된다. 이로서 반꾸밈 미의식의 대표적 유형을 고담(枯淡)의 미학, 농-공무(空無)의 미학, 해학의 미학으로 나누어 이에 내재한 미적 이념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고담의 미학

화려한 '풍류'를 즐기면서, 한편 산 속의 생활을 꿈꾸었던 혜이안(平安)시대 귀족들의 미의식에는 일본인의 자연에 대한 '애듯함'의 감정이 근저에 깔려있다.<sup>29)</sup> 이 애듯함의 근원은 바로 혜이안 시대의 미적 이념인 '아와레'(哀れ)에 내재한다. 아와레는 기쁨, 슬픔에 다 사용되는 영탄적 감정의 표현이었으나 중고시대 이후로는 주로 애련(哀憐), 비애(悲哀)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는 혜이안 중기에 와서 '차분한 정취'를 의미하며, 대상의 본질에 깊이 몰입하는 태도<sup>30)</sup>를 일컫게 되었다.

고대문학의 중심정신인 '마고토'가 진실, 충실, 성실을 특징으로 한 소박한 미적 감동이라면, 헤이안시대의 '아와레'는 애수를 띤 세련된 미적 감동이라 할 수 있다. 이 아와레는 헤이안시대 문예의 미적개념인 '일본적인 그윽한 정취'·'모노노아와레'(物の哀れ)의 근원이 되었으며 무로마치(室町)시대에 이 의미를 더욱 깊게 하는 '유현'(幽玄)의 새로운 미적 가치로 창출된다. 렌가(連歌)의 거장 신케이(心敬)는 유현을 마음의 멋스러움이라 보고 '메마름·싸늘한 모습·쓸쓸하게 식어버린 모습' 즉, 메마르고 차가운 요염미를 지향한다고 하였다. 중세에 흐르는 미적이념인 '유현'은 중세기 노장사상과 선종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인 센리큐(千利休)에 의해 와비차로 결실되고, '와비(佗)'와 '사비(寂)'라는 일본적인 미의식의 기본틀 중의 하나로서<sup>31)</sup> 몰락한 귀족들의 반항적 미의식이 만들어낸 일종의 반문화적 형태로 전개되어 간다.

일본문화에 반드시 거론되는 키워드로서 '와비', '사비'의 미의식은 자연 그 자체를 미의 원형으로 상정한 발상이다. 즉, 이는 어떤 인조물이 자연의 흐름, 즉 세월이 겹겹이 흘러 그 안에 실재하는 인간의 의지의 흔적이 매몰되었을 때 이를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는 일본 문화 특유의 가례(枯れ), 고담의 미의식으로 연결된다.

가례의 미학은 "나무나 풀잎, 샘 등과 같은 것이 마르고 시든다."는 데서 나온 미 이념으로 가능한 국한점까지 군살을 제거한 간결미를 지향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일본인들의 심미기준이 된 '섬세'(纖細), '존재성의 박약'의 원형<sup>32)</sup>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기에서 보여지는 고담의 취향은 와비차의 다실에서 보여지는 무한한 청결미와 섬세미, 그리고 숨겨진 화사미를 동반하고 있다는데서 그 근원으로 작용된 유현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일본적인 '한적함'의 기초를 이룬 선불교의 '본래무사'가 내재하며 나아가 노자의 허(虛)의 존재론으로 연결된다.

몰락한 빈곤함 속에 새로운 미를 발견함으로써 짜튼 '와비', '사비'의 미의식은 특성상 차이가 존재한다. 빈곤함 속에 훨씬 그윽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의미로서 한적한 풍취를 즐기고 번민하는 은둔자의 검약한 모습에 응축된 품격미와 정신적 풍요에 와비는

존재한다.<sup>33)</sup> 여기엔 그러나 빈곤함만으로는 와비가 될 수 없으며 극도로 압축·생략한 간소한 표현 속에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소박함과 우연적으로 발생한 무작위(無作爲)의 미가 내재됨으로써 정신적 풍요를 충만하게 하는 품격미가 내재한다. 이는 탈속의 유희를 통한 가공된 빈곤의 연출로서, 전술했듯이 미완의 가능성을 통한 완(完)의 실현이다.

사비는 세월에 의한 퇴색(褪色), 마멸(摩滅), 파손(破損)이라고 하는 퇴행현상을 우아미(優雅美)로서 인지한 고아(古雅), 고담의 풍미로서의 미이다. 눈앞의 대상을 단지 멋진 것으로만 바라보는 종래의 공간성의 의식에 의한 아름다움과는 다른 시간의식을 투영시켜 공간과 시간의 이중구조를 형성하는 미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sup>34)</sup> 이러한 사비의 관점에서는 와비에서 부정되는 화려함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상을 통해 와비·사비이념을 넣게 한 요소를 간추려 보면 첫째, 일본 역사에 흐르는 마고토-아와레-유현, 유심, 여정(余情)의 미적이념, 둘째, 중국남방 선종의 전래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고담적인 가례의 미학은 일본의 미술, 건축, 조경, 서예, 복식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특성은 공무-허의 미, 단순미, 빈곤미, 자연미, 은폐의 미, 절제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농(臘)-공무(空無)의 미학

농(臘-오보로)의 사전적 의미는 명석(明晳)하지 못한 몽롱한 분위기로 설명된다. 이 몽롱에서 생겨나오는 미의식은 시각영역뿐 아니라, 청각영역에서도 널리 작용되며, 때로는 시·청각의 공감각(Synesthesia)<sup>35)</sup>으로 흔히 사용되어지고 있다. 즉, 청각과 시각이 상호전환 되어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소리를 보는 것과 같은 복수감각, 즉 공감각은 일본 중세 가인들이 즐겨 써왔던 방법이다.

일본 회화나 문학작품에 가스미(霞:봄안개), 기리(霧:아침, 저녁안개, 가을안개), 모야(靄:아지랭이)를 대담하게 원용하고 있는 것도 이 농의 미학과 연관된다.<sup>36)</sup> 일본풍 동양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경이나 원경을 안개무늬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나 가스미 사쿠라(霞櫻)<sup>37)</sup>, 棚霧(다나기리)<sup>38)</sup> 등 의 수많은 문학적 수식어에서 불명확한 감성적 표현을 자주 접

할 수 있다. 이러한 비명석성의 정성분석적 미의식은 서구적인 명석성이나 정량분석적 미의식과는 아주 대조를 이루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의 미학 역시 도가사상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아름다움에 관한 동·서양의 논의를 살펴보면 서양은 희랍인들의 탁월한 미의 인식 아래 아름다움이 어떤 이상적, 이데아적 형상에 있다고 보고 그 형상의 비율을 통해 언어의 고착성과 분별성, 실체성을 전제로 한 미·추의 이분법적 논리의 객관 주의적 전통을 고수하였다. 반면에 동양은 노자이래 객관주의적 미의 인식을 포기하고, 인간의 모든 가치로의 일반적 기저로 풀어나갔다. 한 극(A)과 다른 극(B)의 절대적 비교가 아닌, 즉 A와 B의 이원적 속성을 거부하고, A가 곧 B이고, B가 곧 A이므로 A와 B는 오직 상교의 관계에만 있는 방편적 설정이지, 절대적 설정이 아니라는 노자의 가도지도(可道之道)<sup>39)</sup>로 설명된다. 따라서 동양 미학은 언어의 명징성을 거부한다.-이는 곧 선의 공의 개념과 통하는데, 유와 무의 대립에서 출발하는 선미학<sup>40)</sup>의 중심에는 ‘있는 것이 곧 없음’이요 ‘없는 것이 곧 있음’의 우주 의 삼라만상을 공으로 간주하는 “공 개념”을 중심으로 한다. 선이라는 것도 항상 일체(一切)의 진여성(眞如性)안에 그 자체를 지켜두려 하는데, 문화와 생성의 이세계도 그 안에는 공과 비분별의 초월적 세계이다. 그러므로 선은 우리의 의식이 어느 한쪽으로 만 치우치게 되는 것을 철저히 막으려고 애쓴다.<sup>41)</sup> 따라서 선은 이원론적인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본인들의 선분석아닌 경향분석, 정량분석아닌 정성분석, Digital아닌 Analogue에의 취향은 애매모호성(Ambiguity)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양면가치성(Ambivalence)적 특성으로 형성되고 있다.<sup>42)</sup> 즉, 이는 정반촌(正反村)개념이 한쪽으로도 편재되지 아니하고 주변환경과 요청에 의해 다의성, 가변성을 가지는 특질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전술된 道의 순환성에 의한 이분법적 사고를 인정하지 않는 동양적 우주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며, 또한 중세의 개인 감각에 의해 다의성을 지니며 가변적 특성을 갖는 유현의 미적이념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농의 미학은 유·불·도의 우주관과도 연관이 깊다. 유가와 도가의 경전인 주역(周易)에서 “形

而下者謂之器, 形而上者爲之道”라 하여 형이상의 것을 ‘도’라 하여, 도를 곧 우주의 근본법칙으로 간주하였다. 도의 형이상학적 특징을 나타내주는 것은 무이며, 무는 도의 근본으로 강조되어 본질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즉, ‘도라는 것은 있는 듯, 없는 듯 희미하다(道之爲物, 惟恍惟惚)’—아직 랑이처럼 보일 듯 말 듯, 있는 듯 없는 듯한 도가 바로 무이다.’라고 하였고 이는 전술한 일본예술의 비명석성의 정성분석적 농의 미학에 통하는 것이다.

불교의 ‘공’역시 ‘무’의 지지기반으로 작용<sup>43)</sup>되었으며, 결국 龍의 美學의 저변에는 유·불·도의 우주관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일본인의 반꾸밈 미의식의 저변에는 도가의 사상을 바탕으로 諦사상이 보완적으로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龍의 美學에 在內하는 양면가치적 특성은 과거의 화려함과 현실의 한적함이 동거하는 감정으로서의 幽玄, 有心이나, ‘귀족풍 청빈’·‘질박한 실체’를 의미하는 ‘와비’에도 내재한다. 이러한 양극공생적 문화를 만들어낸 근저에는 불가소급적(不可遡及的) 헤이안왕조에 대한 ‘우아화사’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열적 미의식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로하여 문화와 반 문화라는 영원한 일본특유의 길항(拮抗)적 속성의 미의식을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 (3) 해학(諧謔)의 美學

해학적인 것이란 ‘보고 웃고 싶은 감정’을 말하며 대체로 외부로부터 받은 정취나 감동으로 지적이며 밝고 화사한 정감을 일컫는데, 안으로부터의 은은한 감동과 애수를 중시하는 “겐지 이야기”의 모노노아와레<sup>44)</sup>와 더불어 중고(中古)문학의 미의식을 대표 한다.<sup>45)</sup> 이 해학성은 일본미술의 특색을 논하는 기초개념의 하나로서, 이에 통하는 일본의 미의식 가운데 ‘오카시(可笑し)’라는 말이 있다.

헤이안시대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오카시는 미이건 추이건 간에 어떤 대상물에 대해서 웃음을 느끼게 해서 오는쾌활·명랑한 기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웃음이 아니라 그 대상물에 대한 가치판단이 수반되여 필연적으로 칭찬과 비방의 뜻이 비교적 명료하게 나타나는 것<sup>46)</sup>을 의미한다. 오카시는 객관적, 이지적인 흥취를 나타내

고, 여유가 있으며, 점차로 익살의 뜻으로 사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미술에 나타나는 '해학', '장난기'는 'Playfulness'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는 일본의 조본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조형의식 밑바탕에 깔려있는 요소로 평가<sup>47)</sup>되고 있다. 이렇게 일본인의 미의식 속에는 외면적으로 진지함을 내세우면서 그 이면에는 왕성한 장난기와 유희성이 감추어져 있다. 덴표(天平)시대 장인들이 그렸던 '낙서화'나 「설화 이야기 昔物語」, 「조수회화」등 수많은 작품 속에 나타난 명랑함의 감정은쾌활한 웃음으로 작품 속에 예술로 승화되어 있다.

모모야마시대 사람들의 '허세'의 유희심을 대표하는 것 중에 오리베(織部)취향의 찻그릇 (그림 3)<sup>48)</sup>은 그 형의 비뚤어져 있고 균열이 들어가 있다. 이는 무로마치 말엽의 '질박차'의 계보를 잇는 것으로서, '질박차'의 거장들은 이에 또 다른 미적 가치를 부여하여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이러한 비틀림과 균열은 일종의 '형태의 유희', '미의 유희'로까지 전전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명랑한쾌(快)를 선사하게 되었다.



<그림 3> 검은 오리베,  
일본미술의 이해의 길잡이, p. 113.

일본인의 미의식에 내재하는 추함의 미<sup>49)</sup>에는 오카시에서 비롯된쾌를 유발하는 미의 유희로서 대상물에 대한 심오한 가치판단이 수반된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의도적으로 계획된 유희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희적 표현은 모모야마(桃山)시대의 '허세부린 꾸밈'의 무사들의 복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무사들은 목숨을 내건 전장에 풍류의 유희로서 불규칙, 비대칭, 불완전의 표현을 통하여 괴기스러운 '별종투구', '당세(當世)투구', '형(形)투구'등의 투구를 쓰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내어 과시한 차림 행렬은 생명을 건 긴장된 그들의 심경을 유희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해학적 유희성은 현대 일본패션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 3) 반꾸밈 미의식의 미적범주

이상 반꾸밈 미의식을 구성하는 고담의 미학, 농의 미학, 해학의 미학은 동양적 우주관을 바탕으로 한 도가, 선불교와 그 시대의 미적이념이 융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그 중심에는 절대무를 형상화시키는 한적함, 빈곤감, 무상감, 자유(불투명성), 자연(순수성)이 놓여있다. 이를 근거로 하사마쓰 신이찌의 선예술의 7가지 특성, 가츠히로 세이지마, Harold Koda가 언급한 일본예술의 추의 속성,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이 언급한 일본문화의 특색, 핫토리 유키오(服部新雄)가 제시한 '꾸미지 않은 미'의 계보 등을 참조하여 반꾸밈 미학의 미적 범주를 단순미, 빈곤미, 미완의 미, 도희미, 해학미로 분류하여 현대 일본디자이너들의 작품과 연관하여 살펴본다.

<표 3> 반꾸밈 미학의 미적 이념의 구조

	미적이념	정신사상	미의식	특성
고담의 미학	마고토-아와레 -모노노아와레 무심-유현-사비, 와비	선불교 도가	허의 미, 단순미 빈곤미, 자연미 은폐미, 절제미	미완성 불완전성 불균형
농-공무의 미학	유현	선불교 도가	애매 모호성 도희미, 유현미	비합리성 불완전성 양면성
해학의 미학	오카시	선불교 도가	유희미	비합리성, 형태의 왜곡, 불균형 비대칭

### III. 현대 일본패션에 나타난 반꾸밈 미학

#### 1. 현대 일본패션의 특징

일본의 하이패션은 70년대부터 서구의 전통적인 재단 방식에 의한 구성의 미에 대치되는 독특한 미를 제시함으로써 그 독자적인 위치를 굳혔다. 이러한 일본패션의 독자성은 유럽패션계에서 안티쿠튀르패션으로 부각되어 패션의 패러다임에 변환점이 되기도 하였다.

요지 야마모토(Yoji Yamamoto), 레이 카와쿠보(Rei-Kawakubo),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등을 주축으로 하는 이러한 안티쿠튀르패션의 특징은 첫째, 조형적으로 인체와 의복의 적합성에 대한 기능성을 최소화하여 인체는 인체대로, 소재는 소재대로의 특성을 살린 드레이프형이며 걸치거나, 두르는 등 착장법에 따라 새로운 각도에서 인체를 강조하는 조형미를 창출하였다. 이는 일본전통의 2차원적 구성방식에 의해 3차원적 입체감을 표현함으로써 동·서 양복식의 특징을 성공적으로 접목시킨 새로운 조형미의 창조<sup>50)</sup>라 평가된다. 이러한 조형적 특징은 일본패션의 전위적인 측면으로 부각되기로 하였으나, 이는 복식조형에 대한 서구적인 시각의 관점일 뿐, 일본디자이너들 자체는 자신들의 예술역사에 흐르는 미적 이념과 정신세계를 토대로 한 그들의 미학이었다.

둘째, 선의 본질로서, 사물의 외연적 속성이나 장식을 완전히 묵살한 단순성(minimalism)의 미적 특성을 보인다. 또한 선 미학적 청빈 취미는 화려한 색채에 대한 욕구를 강인하게 저지하며 일본문화특유의 깊은 색채<sup>51)</sup>로 나타남으로써 이 역시 복식에 영향을 미쳐, 훗날 가부키(歌舞伎)의 배우(役者)들의 의상색채는 극도로 억제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역시 일본현대 디자이너들의 안티쿠튀르적 패션의 주요색채경향으로 어둡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무채색 경향이 지배적이다. 소재에 있어서도 단순, 담백, 지미(地味)로운 것을 선택하여 꼬거나, 비틀고 옮을 풀어 헤쳐서 억제되고, 은폐된 도회(韜晦)적인 미를 상징적으로 뿐내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고의적인 반문화 즉 반꾸밈적 특징으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외연적인 것이고, 그 이면에는 타민족을 능가하는 원색과 화려한 장식의 세계가 있었음을 재인식해야하며 이러한 화려함에 대한 갈구는 도가·선 불교 사상을 근원으로 역사와 사회적 배경에 의해 왜곡, 변질되어 일본특유의 반꾸밈의 미의식을 탄생시켰고 이는 현대패션의 세계에까지 그 독특한 미를 승화시켜 세계패션의 한 장면으로 시선을 모으고 있다. 전술한 반꾸밈 미학의 미적 범주를 토대로 현대 일본패션의 조형미의 유형을 분류하여 이에 내재한 반꾸밈 미학의 의미를 비교 고찰한다.

#### 2. 현대 일본패션에 나타난 반꾸밈 미학의 유형

##### 1) 단순미-순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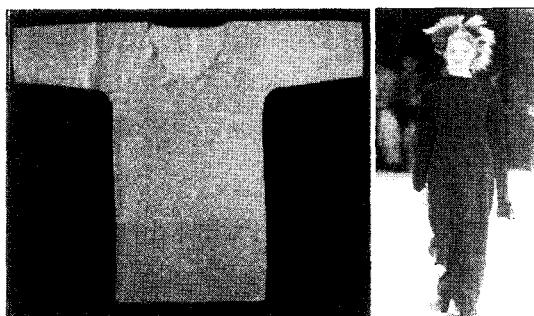
종교적空白에 통하는 ‘꾸미지 않은’ 미의 계보로서의 최대한 불필요한 것을 걸러낸 후에 떠오르는 미의 이념은 형태에 있어 엄격한 절제와 제거를 통한 최소한의 면적, 최소한의 선으로 구성되는 단순미로 집약된다. 반꾸밈文化의 토대를 이룬 선에는 역시 도가의 노자와 상당히 통하는 면이 있는데 노자의 문화개념은 “문화는 생화(生化)되어야지, 문식(文飾)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문화의 본질은 생명의 창조에 있다고 하였다. 노자는 생화되는 문화의 대안으로 소(素)와 박(樸)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일상 어법의 “소박(素朴)”이 바로 노자에서 유래하였다. 여기서 소박은 단순성(simplicity)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는 원초주의(Primitivism)이며, 미니멀리즘(Minimalism)<sup>52)</sup>이라 할 수 있다.

선사시대에 야요이(彌生)토기에서 평면적이고 기하학적인 문양을 통해 간결하고 정적인 조형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출발점으로 한 미의식은 일체기성의 문명을 단절시키고 무(無)로부터 다시 시작하여, 사물의 내면적 본성에 직접 도달하기 위한 정려(精慮)와 ‘자기제어’의 선적 정제된 ‘간결의 미학’을 탄생시켰다. 도가-노자, 선에서 내세우는 무지무욕(無知無欲)은 무관심할 수 있는 여유, 불필요한 지식에 오염되지 않는 영혼의 순결함(Purity), 인격의 소박함, 생활의 단순함(Simplicity)을 말한다. 따라서

선미학적 순수성, 소박성, 단순성은 단순미로 귀결된다.

의장(意匠)의 본래의 의미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서 그 특질을 잊지 않고 가능한 최후의 단계까지 군살을 긁어 간소화하는 작업이다.<sup>53)</sup> 이러한 의미에서 이 단순미는 섬세함과 존재성의 박약의 원형인 고담미와 통한다. 이러한 절제된 선의 아름다움은 일본 고대 신사건축이나, 에도(明治)시대 후기의 우키요에(浮世畫) 회화에 잘 나타나 있고 이는 서양의 입체파 예술을 탄생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음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다. 사물의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원초적 형태는 기하학으로 이는 곧 존재성의 박약의 원형에 통한다. 이 같은 미의식은 복식외형에서 최대한의 절제와 억압을 통한 직선적이며 단순성(Simplicity)으로(그림 4) 표현되고 있다.

세부 장식을 철저히 배제하고 인체의 동체만을 수직적으로 강조하면서 최소한의 면적감을 위해 플리츠 소재로 압축하여 왜소한 T자형의 조형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미는 일본의 대중패션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성이다. <그림 5><sup>54)</sup>과 같은 형의 셀린 슬리브(set-in sleeve)의 블라우스와 직선적인 H라인의 스커트는 일본여성들의 대표적인 대중패션으로 인체에 대한 최소한의 기능성만을 고려한 T자형과 그 안에 내재한 인체형을 최대한 배제한 직사각형의 실루엣에서 인체의 특질을 잊지 않는 절제된 선에서 단순미를 느끼게 한다.



<그림 4> 단순미 Issey Miyake Making Things, p. 52.

## 2) 빈곤미(貧困美)-간소성

'와비(侘び)'미학으로 회자되는 청빈(清貧)과 질박한 실체를 이름다움으로 보는 미의식에는 일본인

의 자연에 대한 서정적 감흥, 즉 아와레의 '애틋함'이 내재되어 있다. 이어 중세의 유현, 유심의 미의식, 도가사상, 선의 부정의 논리와 융합되어 탄생된 '와비'의 미학에서 주지할 점은 소위 '귀족풍 청빈'이라고 하는 몰락한 귀족의 반항적 미의식이 숨어있다는 것이다. 즉, 사치를 향유해온 이후의-'의도적인 빈곤'- 가공된 빈곤의 연출로서 이는 곧 응축된 '꾸밈'의 효과라 할 수도 있다. 또한 에도(江戸)시대의 막부의 마찌인(町人)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부(富)를 이룩한 에도 인들에게 복식의 내부를 마음껏 치장하고 외형은 규제에 따르는 '이키'(捺)의 의도적으로 가공된 빈곤의 미학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미의식에는 운명에 대한 일종의 체념이 스며있으며, 이는 현대 일본패션에 투영되어 좌우 비대칭, 천의 잡아찢기, 해점, 꼬임, 자른채 두기, 감기, 걸쳐 입기, 뒤집기, 불규칙적인 햄라인, 주름잡기, 매듭짓기 등 일본 특유의 해체적인 빈곤미의 전형적인 반꾸밈적 구성을 유럽패션계에 서구 전통의 오트 쿠튀르에 의한 구성의 미에 상반되는 안티쿠튀르 패션으로 등장하여 강한 충격을 주었다.<sup>55)</sup> 또한 복식의 외침보다 내침을 보다 화려하게 장식하는 의도적 빈곤미가 연출된다.(그림 6)<sup>56)</sup>

소재에 있어서는 구멍이 나 있거나, 워시가공, 얼룩진 염색, 비틀기, 구깃구깃한 소재 등으로 얼핏보면 누더기 같으나 실제로는 공예적인 Art Textile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스타일은 샤비록(Shabby), 거지록 또는 누더기록으로 화제가 되었다.(그림 7)<sup>57)</sup>

빈곤미는 최소한의 장식으로 최대한의 장식미를 지향하는 와비(侘茶)의 미학의 추구이며 여기에는 청결미와 섬세미, 숨겨진 화사미를 동반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그림 5> 단순미 Muffin 2001년



<그림 6> 빈곤미  
Takada Kenzo. 1996.



<그림 7> 빈곤미  
Yoshiki Hishinuma. 1998.



<그림 8> 허의미  
Yoshiki Hishi-numa. 1998.



<그림 9> 허의미  
Issey Miyake. 1994.

### 3) 미완의 미-불균형성, 허(虛)의 미

전후좌우의 균형을 중시하지 않는, 가지런하지 못하고 들쑥날쑥하면서, 묘하게 일그러진 곳이 있으며 그러면서도 어딘가 자연스럽게 균형이 잡혀 안정을 잃지 않으나 결국에 기하학적인 완결에 이른다. 이는 바로 눈앞의 부정전(不定全)이 아니라, 무위(無爲)를 통한 자기 완결성의 부정이며, 이로 하여 다시 본래의 자기로 돌아가고자 하는 존재의 측면으로 미완

의 완성이다.

여기엔 허(虛)의 미가 존재한다. 미원(未元)으로 남겨놓은 허의 여백을 통하여 이미지의 탄력을 불어 넣어 무한공간으로 비상할 수 있는 가능성(potentiality)이 잠재하는 것이다. 허의 여백을 통한 이미지 세계의 창출은 무욕을 통해 정신과 마음의 자유를 지향하는 과정이며 모든 존재를 존재이게끔 하는 가능성이며, 실현되기 이전의 잠능(潛能)인 것이다.

이러한 미원에 의한 허의 미는 복식에서 좌우 비대칭을 이루는 불균형, 불완전에 의한 비구축적 형태의 해체적이고 파괴적인 특징으로 나타난다.(그림 8)<sup>58)</sup> 이는 서구인들에게 생략속에 내재된 본질의 정수(精髓)를 표현하는 고전적인 일본의 미학으로 받아들여 졌으며<sup>59)</sup>. 또한 정형화된 구축적 형태의 특성을 갖는 오트쿠튀르적 패션에 반(反)하는 안티쿠튀르적 패션<sup>60)</sup>으로 평가되었다.

완벽한 봉제로 끝마무리를 완성하지 않은 채 남겨 두거나, 비대칭적인 선으로 처리한 험라인을 올을 풀어 해친 상태로 두거나, 커팅한 자체로 마무리함으로써 보는 이의 상상력과 감상을 통해 그 구성의 한계를 확대해 나간다. <그림 9><sup>61)</sup>에서 미야케는 비구축적 형태의 좌우 옆솔기를 미완성인 체 남겨두어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각진 의상 실루엣이 다양한 표정으로 변화되면서 불균형적 형태가 그로테스크하게 표현되었다.<sup>62)</sup> 특히 이 작품의 플리츠 소재는 미원의 형태에 의한 약동하는 우연적인 실루엣을 형성함으로써 완성된 형태로 실현되기 이전의 모든 가능성을 내포하는 虛의 미학으로 이해된다.

### 4) 도회미(韜晦美)-양면성, 모호성

선불교의 空의 개념은 인간존재의 핵심적 본질을 무엇이라 이름지울 수 없는 것으로 마음은 허공과 같아 '크다'고 하였고, 따라서 모든 것은 하나요, 오고 가는 그 어느 곳에 얹매임이 없다 하였다. 이는 선의 도가적 측면과도 통하는데<sup>63)</sup>, 노자는 텅빈 우주를 순환성(circularity)과 리듬성(Rhythmicity)의 특성으로 논했다. 순환성을 나타내는 원(遠)은 멀다는 의미로서, 공간적으로 거리가 멀어져 간다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그 극한성을 다 발현한다는 의미로, '하나의 공간적 감(一逝)'에 치우치는 현상이 아닌,

하나의 연관된 전체로서의 균형을 회복한다고 하였다. 노자는 이를 '반(Returning)'이라 하여 모든 유기체의 "피드백시스템"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데, '반(反)'은 반대(Antitheais)의 의미이나, 동시에 돌아온(返)을 의미하는 순환적 의미를 갖는다.<sup>64)</sup>

따라서 동양사상에서 반의 양극적 상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서로 돌아가는 관계로서返이 아닌反은 실존할 수 없으므로 양극단의 이분법적 논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노자는 '시위무장지상 무물지상(是謂無狀之象, 無物之象)'이라 하여 물체 없는 형상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모습이 없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모습이요, 그것이 곧 모습이 있는 것이다. 즉 어느 일곡에 치우칠 수 없음으로 철저하게 이원론의 오류를 피해가고 있다.<sup>65)</sup> 이러한 것은 모호성으로 설명되는데, 「도가도 비상도(道可道, 非常道)」라 하여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라 하였다. 이는 영원한 도는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또한 도라는 것은 있는 듯 없는 듯 희미하다.(도지위 물 유황유흘 -道之爲物, 惟恍惟惚), 하면서 아지랑이처럼 보일 듯 말 듯, 있는 듯 없는 듯한 도가 바로 무라 하면서 모든 천지만물은 유에서 생기고 유는 무에서 생긴다 하였다.<sup>66)</sup>

도가의 노장사상에 기초한 선의 논리는 이렇게 도가적 측면이 내재한다. 모호성은 일본예술에서 하(霞), 무(霧), 애(靄)(모야-아지랭이)를 원용한 농(朧:오보로)미학과 연관되며, 이는 곧 도가의 이(夷:평탄하고), 희(希:희박하고, 가물가물하며), 미(微:미묘하다)의 무색, 무성, 무형의 세계로 설명되는데, 이, 희, 미는 하나하나 분석되어 따져질 수 없음으로 둥뚱그려 하나로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회색 기호적 농의 미학은 복식에서 형태의 모호성, 색의 모호성, 성의 모호성으로 나타난다.

### (1) 성의 모호성

중세 이래 서양에서는 남녀 구분이 분명한 복식으로 성차를 강조해 왔으나, 19세기 후반 표현주의 시대 이후로 남·녀의 이분법적 구도가 와해되는 성적 불일치 현상을 낳았고 이는 패션의 주요한 컨셉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명징성을 거부하는 선의 공개념은 이원론적 구분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는 비명석

성의 정성분석적 농의 미학에 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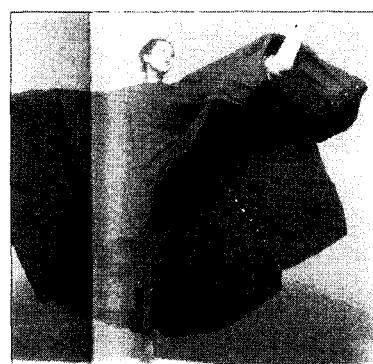
농의 숨어서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 미의식은 성의 구분이 모호한 복식문화와도 연관이 있다고 사료된다. 에도 시대에는 남·여가 서로 비슷한 의복을 착용했다고 한다.<sup>67)</sup> 농의 미학에 내재하는 양면 가치적 특성은 에도시대 남자복식에 긴 하오리(羽織), 긴紐, 흑우이중의 小紬, 세로줄무늬의 하의, 흥색점무늬 등으로 여성스러운 복색<sup>68)</sup>을 했다든가, 유곽(遊廓)에 드나드는 고객이 단골 여인과 의복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애정을 확인했다고 하는 기록은 바로 정체를 불분명하게 하는 미의식으로 통하는 것이며, 일본에서는 이러한 양성적 복식착용 현상이 서양과 상관없이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성의모호성  
Yoji Yamamoto. 98.



<그림 11> 형태의모호성  
Issey Miyake. p. 25.



<그림 12> 형태의모호성 Making Things.  
p. 29.

현대 일본 패션에는 양성적, 중성적인 이미지가 자주 등장한다.(그림 10)<sup>69)</sup> 이 역시 정해진 '범주'로부터 일탈된 고정된 실체를 거부하는 선사상의 핵심이다. 현대 일본 패션은 50~60年代에 이미 mannish한 dandy look이 등장하였고<sup>70)</sup> 저널리스트들은 이러한 성을 초월한 착장법에 대해 이키(粹)하다고 표현하고 있다.<sup>71)</sup>

## (2) 형태의 모호성-무형태

서양복식에 새로운 정신세계를 제시해준 일본 디자이너들의 패션은 인체와 무관한 드레이프형의 다양한 외형을 보여주며 착장법에 따라 새로운 각도에서 인체를 강조하는 다양한 조형미를 창출하고 있다.

선적 '공'개념은 단순히 텅비어 있는 것이 아닌 무한한 가능성의 보고(寶庫)로서, 창조적인 생명력으로 충만된 하나의 점(点)이며, 이는 스스로 하나의 선으로, 면으로, 그리고 삼차원적 입체로 전개시켜 분화되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낸다.<sup>72)</sup> 이는 '무'로부터의 창조이며 정적이 아닌 역동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져야 한다. 비명석적 무형태의 복식형태는 인체 형을 토대로 한 정형화된 의복형이나 착장방식을 거부하고 어떠한 형식의 틀에도 임매이지 않는 여유 있는 자율성을 갖는다. 이는 일본전통의 2차원적 평면구성으로 3차원적 입체감을 표현한 새로운 조형미의 창조이다.

이원성을 거부하는空間은 이세이 미야케의 '한 장의 옷감'으로 제작하는 복식에서 그 특성을 발휘한다.<그림 11><sup>73)</sup> 이는 모든 유기체의 피드백 시스템을 의미하는 空의 순환성-돌아옴(返)을 의미하며, 미야케는 한 장의 천에 담긴 의미를 찾아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의상제작에 단순히 입는다는 의미 이상의 '의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의식이란 바로 '죽음의 의식'이라고 다카하시(高橋睦郎)는 주장한다. 이는 곧 한곳에서 왔다가 다시 한곳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근본적인 과제인 삶과 죽음에 대한 해답을 전통적 의식에서 추구하고 이를 복식에 투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74)</sup> 이를 형상화하기 위해 한 장의 천으로 최대한 구성선을 배제하여 이음선 없이 연속되는 원(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 정형화하지 않는 무형태로 제작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그

림 12)<sup>75)</sup>

## (3) 색의 모호성

농(朧: 오보로)의 미의식은 일본 특유의 표현, 모호 내지는 표현인 색의 문화로 전환되어 정체를 분명히 보이지 않는 취미로 나타난다. 이는 독특한 색문화로 나타나는데 리큐우네즈스미(利久ねずみ)로 대표되는 회색은 여러 가지 원색을 다 담고 있는 혼합색으로 이 검은색과 회색의 중간색이 지니는 애매성이 곧 일본인의 전통색이라고 쿠로카와 키쇼오(黒川紀章)<sup>76)</sup>는 비유한다.

'와비'와 '사비'에 내재된 청빈, 단순, 담백, 지미(地味)의 미의식은 우울하고 어두운 축면이 강조되어 불입문학적(不立文學的) 무채색의 선화(善畫)로 나타났고, 이는 복색에도 투영되어 지미로운 색으로 나타난다. 이는 유현의 미로도 설명된다. 와비의 이념으로부터 표출되어 나오는 색채는 도기나 벽에서 유추해낸 토의 색이요, 혹은 목재나 죽(竹)의 본바탕 색인 蘭은 차색, 황갈색, 차(茶)갈색의 차색이다.<sup>77)</sup> 또한 쿠키슈우소오(九鬼嵩造)는 이키(粹)의 색채로서 '회색', '갈색', '청색' 계통을 꼽고 있는데 이키의 색이란 화려한 체험에 뒤따르는 소극적 잔상으로, 과거를 그 속에 품으면서 미래를 살고 있다고 풀이한다. 그리고 이기는 색기 속에 색맹의 회색을 담고 있으며 색정적이면서도 결코 타락하지 않는 것이 이기라고 하였다. 즉 이기는 "색정적인 긍정 속에 검은색 부정을 숨기고 있다."고 하며 일본인이 선호하는 어두운 중간색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속에 겹겹이 쌓아 올린 다채로운 색상을 짐작케 하며 이 다채로운 시각적 감성이 Black-hole화<sup>78)</sup> 하여 중간색의 독특한 색문화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비에서 유출되어 나오는 색채는 사비 본래의 긴 시간의 쌓임에서 생겨나온 "낡은 것"을 상징하는 색채와 또 이와는 대조적인 칠라의 한순간에 빛을 발하는 선려한 색채이다. 이는 호화롭고 화려한 것이 시간이 경과하여 풍설에서의 손상된 그 자체의 적갈색 녹빛이라 할 수 있는데 모든 색상을 다 내포하고 있으나 세월의 축적에 명도·채도가 저하되어 회색, 쥐(灰)색이 추구하는 석회색조, 혹은 무채색으로 나타난다. 이는 빛(光)을 억제하여 석양의 황홀을

연상시키는 약한 빛 속에서 사물의 형태도, 색도 완전히 없음으로써 그윽하고 조용한 형상을 멈추게 한 듯한 배경의 색이다. 색도 형도 없는 무일물(無一物)의 세계, 영원, 무한의 세계를 지향하는 색인 것이다<sup>79)</sup>. 또한 이키의 내부적구조의 요인으로서 미태(媚態), 기개(意氣地), 체념(諦め)을 복식으로 구체화하는데 있어 쥐색, 차색(茶色), 청(青)계통의 수수한 색조로 인지되었다<sup>80)</sup>. 이렇듯 반꾸밈적 패션에 나타나는 복색은 대부분 희색, 차색, 쥐색, 황갈색계통의 어두운 중간색 내지는 무채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 5) 해학미-유희성

중세의 미적이념-오카시의 '명랑함'의 전통은 다양한 형태로 일본 미술에 흐르고 있다. 일본 미술의 조형의식에 기본으로 위치하는 해학성에는 선의 또 다른 본질적 특색이라 할 수 있는 자유로움, 편안함이 존재하며 이는 감상자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준다.

일본 예술에 나타나는 해학적 표현은 고도의 사실성과 해학적 깊이에 도달해 있던 수묵화에서 그 반꾸밈적 미의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그 특징은 대상의 충실했 재현에서 벗어나 '여백'과 더불어 스스로의 즐거움을 찾아 거의 자율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이는 기발한 디자인과 유머러스함으로 익살과 生을 긍정하는 낙천성, 단순한 진솔함이 내재한다.

유희성과 관련하여 일본회화에 애용되고 있는 두 가지 특징적 방법 중 '견주기(見立て)<그림 13><sup>81)</sup>'는 주제 본래의 의미나 내용을 바꿔치는 수법으로 서양의 패러디와 유사한 형식이며, 다른 하나는 '시각적 트릭'으로 모티브를 지나치게 확대·축소하거나, 없는 이미지를 실제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수법으로<sup>82)</sup> 이는 초현실주의의 트롱프레유(trompe l'eil)에 견줄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현대 일본 패션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기발한 유머로 그 독특성이 표현되고 있다. 특히 이세이 미야케는 1. 좌우 대칭을 무시한 형태의 왜곡, 2. 극단적인 양감의 강조, 3. 독특한 외형과 옷주름의 표현, 4. 풍선과 같은 의외성의 부풀림 등을 특징으로 하는 작품들은 시선을 끌었다. <그림 14><sup>83)</sup>은 마치 풍선처럼 부풀린 상체의 과장된 부풀림, <그림 15><sup>84)</sup>에서 보여 지는 하체의 극단적 양감으로 좌

우대칭을 무시한 형태의 왜곡에 의한 불균형적 묘사에서 기존의 형태는 거의 타원에 가깝게 추상화되고 단순화되어 낙천적이고 자유로움을 느끼게 한다.



<그림 13> 해학미  
야채열반도 일본미술의  
이해의 길잡이. p. 119.



<그림 14> 해학미  
Issey Miyake. p. 30.



<그림 15> 해학미  
Issey Miyake. p. 16.

## IV. 결론

본 연구는 1. 일본의 반꾸밈 문화에 내재하는 정신사상의 근원을 살피고 2. 이를 구성하는 대표적 미적이념을 도출하여 3. 이와 연관하여 일본 현대 패션에 내재한 그 미학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선과 연관하여 평가되고 있는 '반꾸밈'계 문화는 도가, 불교의 동양적 정신사상이 보완적으로 작용되어 일본인 특유의 주관적 변안과 해체를 통해 독자적인 미의식을 창출하였다. 또한 반꾸밈 문화는 일본에 선이 들어오면서 형성되었다고 인지되고 있으나, 이는 일본문화사에 면면히 흘러온 미적 정서로서 선 철학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상화 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불균형성, 불완전성, 불규칙성의 일본의 반꾸밈 미학의 본질은 미의 풍부한 이상성을 주장한 Karl Rosencranz의 추(醜)에 대한 '몰형식성', '부정확성', '변형'의 개념정의를 통해 추의 미로 인지된다.

3. 반꾸밈 미의식은 고담의 미학, 농의 미학, 해학의 미학으로 나누어 그 미적 이념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1) 고담의 미학은 종교적 공(空), 허(虛), 무(無)로 통하는 중세 헤이안시대의 와비, 사비의 미적이념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이는 고대의 중심정신인 마고토, 아와레, 모노노아와레, 유현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에는 극도로 압축, 생략한 간소함, 빈곤함 속에 내재된 품격미, 세월에 대한 퇴행 현상을 시·공간적 이중구조를 형성하는 미로 승화시킨 미의식이다.

2) 농의 미학은 노자이래 객관적 미의 인식을 포기한 비명석적 동양적 우주관의 이원론성을 거부하는 화부분석적, 정성분석적, 일본 특유의 양면가치성으로 이는 중세 유현과 관련이 깊다. 이에는 역시 유·불·도의 동양적 우주관이 흐르고 있다.

3) 중세 헤이안시대의 미적 이념 오카시에는 감정(우아)과 익살의 두 개념이 존재한다. 이가운데 익살의 오카시에 내재된 해학성은 형태의 왜곡, 비합리적 불균형을 특징으로 일본 조형의식의 기본적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4. 반꾸밈 미의식의 미적 범주는 단순미, 빈곤미, 미완의 미, 도회미, 해학미로 정리하였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단순미는 엄격한 절제와 제거를 통해 최소한의 선과 면적으로 구성되며, 이는 복식 외형에서

최대한의 절제와 억압을 통해 디테일의 장식을 철저히 배제하고 최소의 면적, 직선적인 동체의 수직성만을 강조한 단순성을 강조하고 있다.

- 2) 빈곤미는 중세의 유현(幽玄), 유심(有心)의 미적이념에서 비롯된 와비미학과 연관지을 수 있으며 청빈과 질박한 실체를 아름답게 간주하는 미의식이다. 이는 복식의 외형보다 내부를 더욱 화려하게 치장하면서 외부는 해침, 잡아 짓기, 뒤집기, 주름, 매듭짓기 등의 구성으로 서구 오뜨쿠튀르적 구성의 미에 상반되는 안티쿠튀르패션으로 등장되었다. 즉, 최소의 장식으로 최대의 장식미를 지향하는 와비 미학의 추구이다.
- 3) 미완의 미는 허(虛)의 여백을 통한 이미지 세계의 창출은 무욕(無慾)을 통한 심신의 자유의 지향이며 모든 존재의 실현 가능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끝마무리를 미완성으로 남겨 놓거나, 비대칭 선 처리의 험라인의 풀기, 커팅 상태로 마무리하기 등 보는 이의 상상력으로 그 조형이 완결된다. 이는 정형화 된 구축적 형태의 특성을 갖는 오투쿠튀르적 패션에 反하는 안티쿠티르패션 등으로 평가되었다.
- 4) 양극의 이원론을 거부하는 도가적 측면이 내재한 농의 미학은 속이 깊고 미묘해 알아차릴 수 없는 선미학적 유현과 상통하며 이는 무형, 무색, 무성의 도회미로 설명된다. 이는 복식에서 인체와 무관한 다양한 드레이프형의 형태의 모호성, 어둡고 눈에 잘 띄이지 않는 色의 모호성, 성적정체를 분명히 알 수 없는 性의 모호성 등 Androgenous look으로 나타난다.
- 5) 중세의 오카시는 선적 자유로움과 편안함의 특성으로 일본 미술 조형의식에 기본으로 위치하는 해학성으로 반꾸밈 미의식의 단면을 나타낸다.

이는 패러디와 유사한 형식의 '견주기 見立て', 트롱프레유와 유사한 '시각적 트릭'의 특징은 복식에서 형태의 왜곡, 극단적인 양감의 대비에 의한 불균형, 기존 상식을 초월한 의외성의 부풀림 등으로 추상화되고 단순화되어 낙천적인 유희미를 선사한다.

이상 반꾸밈계의 미의식은 꾸밈 문화에 反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극도의 절제와 생략을 통한 간결 미로서 인공미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며, 이는 고도로 계획된 ‘의도적인 빈곤’- 가공의 빈곤의 연출에 의한 응축된 꾸밈의 효과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독특한 미의식은 세계적으로 일본의 독자적인 패션문화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柳田聖山, 한보광 역 (1995). 禪과 일본 文化. 불광출판부, p. 72.
- 2) 채금석 (2004). 현대일본패션에 내재한 꾸밈 미학. 복식, 54(3), pp. 113~127.
- 3) 위의 논문, p. 116.
- 4) 위의 논문, pp. 114~115.
- 5) 위의 논문, p. 115.
- 6) 이상업 (1999). 일본문화와 그 마음. 서울:도서출판 보고사, p. 123.
- 7) 柳田聖山, *op. cit.*, p. 78.
- 8) 채금석 (2004). 앞의 논문.
- 9) 渡邊照宏, 김진만역 (1995). 일본의 불교. 소화, p. 136.
- 10) 鈴木大拙, 박용길역 (1989). 선공부. 해냄, p. 32.
- 11) 위의 책, p. 6.
- 12) 柳田聖山, 앞의 책, p. 79.
- 13) 위의 책, pp. 20~37.
- 14) 津田左右吉, 남기학역 (1995). 중국사상과 일본사상. 小化출판사.
- 15) 柳田聖山, 앞의 책, p. 41.
- 16) 辻惟雄, 이해원역 (1994). 일본미술의 이해의 길잡이. 시공사, p. 82.
- 17) 辻惟雄, 앞의 책, p. 71.
- 18) Alan Kennedy (1990). *Japanese costume: History & tradition*. Paris: Adam Biro, p. 28.
- 19) 윤순향 (1985). Kant Rosenkranz에 있어서 ‘주의 미학’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
- 20) 장파 (1999).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푸른숲, pp. 3 7~43.
- 21) 김용옥 (1999). 노자와 21세기 上. 통나무, pp. 184~193.
- 22) 위의 책, p. 166.
- 23) 장파, 앞의 책, p. 42.
- 24) Steele Valerie, *Womens of fashion*. NY: Rizzoli, p. 186.
- 25) 채금석 (2004). 앞의 논문.
- 26) 위의 논문, p. 10.
- 27) 이상업, 앞의 책, pp. 214~215.
- 28) 辻惟雄, 앞의 책, p. 41.
- 29) 위의 책, p. 73.
- 30) 허영은 (1997). 일본문화의 이해. 대구대학교 출판부, p. 64.
- 31) 이상업, 앞의 책, p. 131.
- 32) 이상업, 위의 책, p. 138.
- 33) 河原由紀子 (昭和55年). 中世의 色彩美感.. 日本服飾美學會, 九号, p. 56.
- 34) 위의 책, p. 58.
- 35) 이상업, 앞의 책, pp. 276~277.
- 36) 위의 책, p. 279.
- 37) 벚꽃이 중경. 원경을 봄 안개처럼 가득 채우고 있는 모양을 묘사한 장면
- 38) 가로길게 깔린 가을 안개
- 39) 항상 그러한 도(常道)가 아닌 개념.—즉 長과 短은 단지 相較되는데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가변성이다.
- 40) 鈴木大拙, 앞의 책, p. 51.
- 41) 위의 책, p. 87.
- 42) 이상업, 앞의 책, pp. 280~281.
- 43) 장파 (1999). 앞의 책, pp. 37~42.
- 44) 헤이안시대·문예의 미적 개념으로서 그 기반은 감동을 나타내는 말인 아와레에서 비롯되었으며, 어떤 대상을 접했을 때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우아하고 섬세하며 애수를 떠 느낌을 말한다.
- 45) 허영은, 앞의 책, p. 64.
- 46) 栗山理一, 앞의 책, p. 60.
- 47) 辻惟雄, 앞의 책, p. 89.
- 48) 辻惟雄, 앞의 책, p. 113.
- 49) Alan Kennendy (1990). *Japaness costume: History & tradition*. Paris: Adam Biro, p. 28.
- 50) 채금석, 앞의 책, p. 231.
- 51) 이상업, 앞의 책, p. 261.
- 52) 김용옥 (1999). 노자와 21세기 下. 통나무, p. 67.
- 53) 이상업, 앞의 책, p. 215.
- 54) 일본잡지 *Muffin*, 2001년 11월호.
- 55) 채금석, 千村典生 (2003). 세계패션의 흐름. 지구 문화사, p. 176.
- 56) Fashion News, *Takada Kenzo*, 96 f/f collection.
- 57) Fashion News, *Yoshiki Hishinuma* 98 f/f collection.
- 58) Clare Wilcox (2001). *Radical Fashion*. V&A Publication, p. 126.
- 59) 채금석 (1995). 현대복식미학. 경춘사, p. 230.
- 60) 채금석, 千村典生, 앞의 책, p. 240.
- 61) 채금석, 위의 책, p. 244.

- 62) 채금석. 앞의 책, p. 244.
- 63) 鈴木大拙. 앞의 책, p. 32.
- 64) 장파. 앞의 책, p. 48.
- 65) 김용옥. 앞의 책, pp. 153~162.
- 66) 장파. 앞의 책, p. 38.
- 67) 小池三枝 (1990). 服飾の男女具有誌む. 日本服飾美學 19号.
- 68) 辻惟雄. 앞의 책, p. 103.
- 69) Fashion News. *Yoji Yamamoto*. 98 f/f collection
- 70) 面山學者 朝日新聞. 1957年. 11. 20日者.
- 71) 朝日新聞 57.11.20 西山學者
- 72) 鈴木大拙. 앞의 책, p. 143.
- 73) Irving Penn (1987). *Issey Miyake. Callaway*, p. 25.
- 74) 채금석 (1995). 현대복식미학. 경춘사, p. 231.
- 75) 三宅一生 (1985) *ISSEY MIYAKE -East Meets West*. 平凡社, p. 141.
- 76) 이상업. 앞의 책, p. 287.
- 77) 昭和55年. 中世의 色彩美感. 服飾美學會, 9号, p. 57.
- 78) 이상업. 앞의 책, pp. 260~285.
- 79) 河原由紀子. 앞의 책, p. 59.
- 80) 小池三枝. 日本服飾美學, 19号, p. 101.
- 81) 辻惟雄. 앞의 책, p. 119.
- 82) 위의 책, p. 120.
- 83) Irving Penn. *op. cit.*, p. 30.
- 84) *Ibid.*, p. 16.